

노대통령, 남미 순방 및 APEC 참석차 출국

20일엔 부시만나 6자회담 등 논의

2004-11-12 14:35

민일성 (mini99999@dailyseoprise.com)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후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남미 3개국 순방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특별기편으로 출국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문제협의회(World Affairs Council, WAC , 민간 외교정책 관련 단체) 주최 오찬에 참석, 250여명의 미 각계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재조명하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 대외 정책 구상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영화·문화산업계 동포교포 29명을 접견하며 오후에는 LA 동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본격적인 남미 순방 일정이 시작된다. 노 대통령은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수산업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협력,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간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 우리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통한 상호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6~18일에는 룰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공식 방문한다. 노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역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한-남미공동시장간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 한-브라질 IT 협력센터 설립, 자원분야 협력, 우리 기업의 브라질 인프라 확충 사업 참여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자원협력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자원 부국인 브라질로부터 원활한 자원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라고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칠레를 공식 방문, 정상회담을 가진다. 양국은 올 4월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칠레 IT 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정보통신분야 협력 강화, 광물자원 개발 참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일부터 21일까지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칠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반테러와 인간 안보, 다자 무역체제 강화, APEC 개혁 문제 등에 관한 정상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세계 정상들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선에 성공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6자회담, 한미 동맹관계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외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의 개별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테러 문제, 양자 경제·통상 분야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이구택 POSCO 회장 등 기업인 24명이 동행했다.

노대통령 남미순방 동행 경제인 24명 명단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구택 POSCO 회장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주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김쌍수 LG 전자 부회장	△최한영 현대기아자동차 사장
△신현철 SK 사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이태용 (주)대우인터내셔널 사장	△오영교 KOTRA 사장
△신동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송웅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조명행 한중남미협회 부회장	△추동화 DHL 단자스 에어엔오션(주) 대표이사
△백원기 효성 부사장	△이국호 LG-Nikko 동제련 전무 (총 24명)

□ 데일리서프라이즈